



UD · AD 현상과 전망

Universal Design · Accessible Design : the Present and Future

星川 安之 / (재)공용품추천기구 전무이사

I. 서론

작년 12월에 한국규격협회로부터 8가지의 새로운 국가규격(KS)이 제정되었다.

이 8가지의 규격은 일본 JIS의 고령자·장애자 배려설계지침시리즈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채용한 것이다.

8가지의 규격의 안에는 고령자·장애자 배려설계지침 - 포장·용기(JIS S 0021), 고령자·장애자 배려설계지침 - 포장·용기 - 개봉성 시험방법(JIS S 0022)도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의 포장분야에 있어서 고령자·장애자의 배려(Accessible Design)가 보급되어 갈 것이 기대된다.

한국에서는 이번의 규격이 생기기 수 년 전부터 편의점 등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샴푸용기의 측면에 양·음각이 가공되어 눈이 불편한 사람도 린스용기와 구별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든 기업도 나오고 있다.

또한 캔 맥주 상부 및 병맥주의 측면에 한글의 점자로 '맥주'라고 표기한 메이커도 나오고

있다.

이것은 이전에 일본포장기술협회가 발행한 '포장기술'의 특집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기업도 있고, 일본의 JIS규격을 참고했다는 기업도 있다고 들었다.

한국에서는 그 외에도 초콜릿의 종이케이스, 약의 종이패키지, 한국 전통음료인 수정과의 캔상단부 등에도 점자가 표시되고 있다.

또한, 공용품추진기구에 아시아 8개국으로부터 각국의 표준화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방문하였을 시에, 일본의 Accessible Design에 관한 설명을 한 후, 용기의 측면에 양·음각으로 처리된 샴푸용기를 사용하는 국가가 있는지 물어본 결과, 한국, 중국,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관계자들의 손이 올라갔고, '모든 샴푸용기는 아니지만 몇몇 회사의 샴푸측면에 양·음각 처리가 되어있고 린스에는 처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어떤 경유로 양·음각처리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린스에 양·음각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눈이 불편한 사람, 눈

[사진 1] 한국 포장 용기



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머리를 감을 때에 눈을 감는 사람들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추측된다.

1. 한국규격 제정 배경

한국에서 일본의 규격이 검토되어 국가규격이 된 계기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Accessible Design분야의 표준화의 보급을 검토하는 의회(한·중·일Accessible Design위원회)를 지금까지 2차례 갖은 성과에 있었다.

이 위원회는 2003년 일본으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발족된 위원회로서 일본포장기술협회의 酒井光彦(M. Sakai)전무도 일본의 대표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酒井 씨의 참가로 알 수 있듯이 한국, 중국도 포장용기의 유니버설디자인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 회합(會合)도 하나의 계기가 되어 이 분야를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으로 명명하고 표준화의 추진과 함께 유니버설디자인 리서치센터(UDRS)를 부산의 경성대학에 작년년부터 위임

하여 조사·연구·보급의 3분야로 사업전개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 센터의 책임자 이 교수는 일본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한국의 자동차메이커에서 디자이너로 활약한 후 동 대학의 교수로 취임하여 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에게 앞으로의 UDRS의 계획을 문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다.

- 1) 1차 연도(2004)
 - UD R&D 인프라정비
 - UD 기반비초연구소 수행
- 2) 2차 연도(2005)
 - UD 추진 툴(Tool)의 개발
 - UD D/B서비스 및 네트워크의 확충
 - UD 시제품개발
- 3) 3차 연도(2006)
 - 자립운영을 위한 수익산업추진
 - 지적재산권확보 및 기획사업
- 4) 장기과제(2007~)
 - 생활환경향상을 위한 UD개념의 보급
 - 지속사업수행

2. 중국 대처

한편 중국은 현재의 인구 13억 명 중에 고령자가 벌써 1억3,400만 명에 이른다. 인구수만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자가 많은 나라이다.

그러한 연유로 현재 중국에서는 '고령자복지 서비스화'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소비자와의 접점에 주목한 전국서비스표준화기술위원회의 산하에 설립된 100가지 사회서비스에 관한 1가지이며, 제품을 포함해



서비스의 향상을 표준을 만들어갈 예정이라는 것을 4월 서울에서 한중일 회의 시에 보고가 있었다.

북경(北京), 광주(廣州)에서 시장으로 나가는 배려된 포장용기를 볼 기회가 있었다. 어느 곳에서도 삼푸용기 측면에 양·음각처리가 있는 물건이 복수(複數) 있었으며, 일본에서 시작된 이 방법이 조금씩 넓혀져 가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3. 국제적인 움직임

원래 이 분야의 발신원이 일본이라는 것은 일본포장기술협회가 발행한 '포장기술'의 12월호 특집 '고령화 사회와 유니버설디자인'에 그 상세를 기술하고 있다. 요약을 하면, 1990년대 일본에서 이루어진 '고령자·장애자들에 배려 제품에 대한 배려의 표준화를 국가로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각국에 문의하여 확인한 것이 1996~1997년이다.

각국의 관련기관에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판매되는 제품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불편을 해소시킨 물건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삼푸용기의 양·음각 처리"라고 질문한 결과, 각국에서의 답변은 "훌륭한 것으로서 찬동은 합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일본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을 배려한 일반제품은 아직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래서 일본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품·서비스·환경을 만들 때에 모든 규격이 고령자·장애자에게 사용이 편리하게 하기 위한

가이드를 작성할 것을 제안하고 ISO 참가국의 만장일치를 얻어, 일본이 의장국이 되어 ISO로 71번째의 가이드(고령자 및 장애자의 니즈에 대응한 규격작성배려지침)가 2001년 11월에 ISO로부터 발행되어 이 분야에서 국제적인 큰 방향성이 생겨났다.

그 후, ISO/IEC 가이드71은 한국, 구미연합, 이탈리아, 스페인 및 그 외의 나라들에게서도 국가규격으로 받아들여져 일본에서는 2003년 6월 JIS Z 8071로서 제정되었다.

일본에서 JIS의 총괄을 맡고 있는 일본공업표준조사회(JISC)에서는 가이드71의 JIS화에 맞춰서 '고령자·장애자로의 배려 표준화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를 발행하여 앞으로의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1) JIS Z 87071 '고령자 및 장애인들의 니즈에 대응한 규격작성배려지침'의 보급과 관련된 JIS의 체계적 작성

- 2003년 6월 제정예정의 'JIS Z 8071'을 관계하는 JIS원안작성 및 기존 JIS의 재검토시기에 있어서 지침으로 사용될 시스템의 구축이 국내에 있어서 긴박한 과제이다. 원안작성 단계로의 심포지엄의 개최, 매뉴얼의 작성 등이 생각되어 진다.

(2) JIS Z 8071의 Sector Guide의 작성과 개별위치 정리의 명확화

- ISO, IEC나 유럽의 규격작성기관과의 연계 및 조정을 하면서 'ISO/IEC 가이드71'의 Sector Guide 작성을 하며 일본 내에 있어서 고령자·장애자배려표준화에 있어 기존 및 신규 규격의 자리매김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

(3) Accessible Design Forum의 발족

(그림 1) 포장용기에 있어서의 불편함



- 일본 내에 있어서 고령자, 장애자에 관계하는 많은 기관 상호의 '정보공유화'를 기본으로 ① 과제유출, ② 과제해결, ③ 보급'을 제휴하는 형태와, 조직의 발족이 과제가 된다.

또한 각 사업의 추진모체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4) 아시아 각국과의 연계로 아시아에서 시작한 국제규격의 작성

- 일본 내에서의 충실과 함께 한국,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각국으로 일본의 정보제공과 함께 고령자, 장애인배려분야에서의 공동규격을 검토하는 것이 ISO/IEC 가이드71 위원회장국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5) ISO 규격제안

- 개별규격에 있어 아시아의 의견을 모아서 국제적인 장소로 아시아의 의견으로서 제안함과 동시에, 국제표준기관에 있어서 고령자·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배려표준화의 비전을 제안해 나가는 것이 큰 과제로 사료된다.

또한 이 분야에서 EU위원회의 위임(Mandate)아래 활발한 움직임을 하고 있는 CEN/CENELEC/ETSI와의 지속적인 연계도 중요하다.

(6) 마크(Mark)제도에 의한 고령자·장애인 배려제도

- 마크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공급자가 가능한 한 부담이 적은 형태의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마크제도의 도입 시에는 복잡하지 않고 알기 쉬운 형태만의 운용이 바람직하며, 또한 민간주도에 의한 실시를 전제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4. 전망

앞으로 UD, Accessible Design을 일본 내 및 국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과제와 과제해결을 위한 수단이 있으리라 생각



된다(그림 1).

먼저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그 불편함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공용품추진기구에서는 1991년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 고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왔으나 장애인만이 아닌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 모두가 조사의 대상이어야 한다.

또한 언제라도 누구라도 그 불편함 또는 그에 대해 해결안을 말하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최초의 과제이다.

두 번째로 상기에 나온 불편함의 해결. 그 해결방법이 각각의 제품차별화로 해결되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표준화가 나서야 된다.

이 분야는 전반부에 많이 기술했으나 현재 가이드71을 보충하는 귀중한 데이터작성이 ISO

의 안에서 인간공학분야 TC159의 위원회에 새롭게 작업위원회를 두고 일본인 의장아래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려·고려된 제품·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의 정보제공이다.

작년 Web의 Accessibility에 관한 JIS규격이 제정되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환작업이 요구된다.

그 일환작업의 속에서 소비자가 가장 먼저 보고, 만지는 것은 '포장·용기'이다.

야구로 말하자면 1번 타자. 1번 타자가 나서야 처음으로 게임이 전개된다.

그 의미로도 UD·Accessible Design, 배리어프리 등 단어는 많이 있지만, 이 분야 어느 것이라 하더라도 선두타자 즉 포장용기의 활약이 그 전개의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다. ☞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